

# 장흥군, 목재산업 중심지로 약꿈꾼다

### 국산목재 활용한 생활 목제품 보급, 목재 전문가 양성

### 2016년부터 380회 교육 통해 목공예 기능인 562명 배출



장흥군이 지역 목재산업 부흥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도전한다.

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 초입에는 목재산업 지원센터와 전남 목공예센터 임울대, 억불대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장흥군의 목재산업과 목재인력 양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목재산업지원센터는 목재관련 행정업무, 디자인 개발, 목제품 생산 등 파र्ट별 업무를 맡고 있다.

1층에는 홍보전시실, 체험형 갤러리카페, 제품제작실을 갖추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교육실, 세미나실, 창업보육실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편백, 단풍나무 등 국산목재를 활용한 양면·단면 상패, 탁상용·파티션 명패 등이 장흥군 직영 목제품으로 제작된다.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목재 만년필, 볼펜, 텀블러와 체험형 목제품인 독서대, 연필꽂이, 화병, 각종 거치대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다.

목재산업지원센터는 도마, 텀블러 우수디자인(GD)과 상표권 등 14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개관 이래 현재까지 21억 2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재산업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실에는 전남

장흥지역 자활센터, 신활력 플러스 사회적 협동조합 등 2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입주 기관은 유아용 목재 장난감 개발과 편백 공방·체험장, 목재오일 추출 및 화장품 제조, 아로마테라피 교육 운영으로 실용적인 목재산업 아이템 육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건너 편에 자리한 전남 목공예센터는 억불대와 임울대 등 2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임울대는 1층 장흥군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 홍보관과 목공예 교육 홍보전시관, 2층은 상설 전시관으로 꾸며져 목공 체험장 등 다양한 전시홍보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억불대 1층에서는 지역 목공예 산업의 전초기지인 5개 공방이 입주하여 편백 목제품 판매장과 민간 업체(공예·공방)가 상주하여 우수 목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2층은 목공예 교육프로그램, 목공체험지도사 2·3급 과정 양성을 위한 교육장으로 운영된다.

교육장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생활목공 주말반 운영을 시작으로 우드버닝(인두화), 생활목공, 서각 중급반 운영 등 목공예의 기능적인 부분을 심화 교육한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380회의 교육을 통해 목공예 기능인 562명을 배출하여, 지역 목재산업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 등 목공예 문화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흥목공예 협회(회장 위성읍)와 연계를 통해 회원들이 실력을 발휘한 목제품을 전남목공예센터 임울대에서 열리는 말레장(월 1회)과 목공예품 전시회(연 1회)에 출품하기도 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설립된 목재산업 전문기관”이라며, “일반인이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목재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 진도군,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진도군이 연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은 26억 2천만원으로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한다.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면서 세금 미납시 부동산 또는 차량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범위반 등 과태료 체납 차량은 차량영치시스템을 통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과태료는 매월 최고 75%까지 증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완도군, 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 초청 정책 토론회

완도군은 11월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을 초청하여 ‘완도 발전 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은 ‘완도의 지역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발전 전략’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국가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완도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과 수산업, 해양치유산업 등 강점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 이어진 정책 컨설팅에는 공약 및

핵심 사업 추진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전략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대응, 국비 확보,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 선정 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건설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건설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해조류바이오 스마트 팜 구축 ▲해양치유 스포츠레저센터 건립 ▲청산도 국가농업유산센터 건립 등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강진군, 2022년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진행

강진군이 지난 23일 공공건축 관례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을 개최했다.

최근 공공건축 제도 및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업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행된 이날 교육은 국토교통부 문화경관과에서 주관하고 산하기관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협

조를 받아 ‘공공건축 기획업무 및 설계공모제도에 대한 역량 향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공공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인 건축기획에서부터 필요 행정절차, 사례 및 문제점을 살펴보는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됐다.

강진=김영일기자

## 해남군 스톡 꽃 수확 한창

### 관내 2.5ha 재배...저온성 화훼로 농가소득에도 일조



해남군에서는 꽃 봉오리마다 향기를 가득 품은 스톡 꽃 수확이 한창이다.

저온성 화훼 품종인 스톡은 10월 중순부터 출하를 시작해 1단(6개 묶음)에 상품기준 1만원에 도매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0.1ha당 1,2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해남에서는 지난 2020년 저온성 품종 개발을 통해 보급을 시작, 현재 6농가에서 2.5ha가량 재배되고 있다.

스톡은 추위에 강하고 주간 15~20℃, 야간 8~10℃에서 잘 자라는 품종으로 해남군의 풍부한 일조량과 온난한 기후조건을 이용, 가을에서 봄까지 재배작업을 세분화해 노동력을 분산하고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져 품질 좋은 스톡을 생산, 출하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